

연구논문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김명소* · 한영석**

Myoung-So Kim · Young-Seok Han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지수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 FGI(61명)와 설문조사(1,503명)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6개의 행복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을 Alderfer(1972)의 생존·관계·성장 욕구위계 이론에 따라 3 요소로 재분류한 뒤, LISREL을 이용하여 측정 모형에 의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은 '행복=2.5* 생존+2.5* 관계+5* 성장'으로 나타났고, 공식에 따른 한국인의 행복점수는 평균 57.7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행복감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또한 행복점수에 따라 상위 33%(즉, 행복하다고 느끼는 집단)와 하위 33%(즉, 불행하다고 느끼는 집단)를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존과 관계요소에서의 차이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인 성장요소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생존 요소와 관계 요소보다는 성장요소가 한국인의 행복감 지각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행복을 위한 제언을 소개하였다.

주제어: 행복, 행복지수, 행복지수 공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happiness index for Korean. 16 factors of happiness derived from bot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ased on a nationwide sample of 1503 Korean adults were reclassified into 3 components of Alderfer's need theory. The LISREL was used to measure the weight of each happiness factor. The results showed that happiness index was functioned by a formula(Happiness = 2.5*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김명소.

E-mail: mskim@office.hoseo.ac.kr

** 중앙공무원교육원 역량진단센터 전문관

existence + 2.5 * relationship + 5 * growth). Applying this formula, the average happiness score for Korean was 57.71.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the degree of happiness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s gender, region, and income. Men was happier than wome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s. As far as the region concerned, those who live in Seoul and Daejeon were happier than the others. People who earn over 2,500,000 won per month were happier than the others in terms of economic status. Finally, the result of th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 or psychological growth factor was more important than existence and relationship factors.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 happiness, happiness index, happiness formula

I. 서론

한 국가 수준에서 일인당 GNP의 증가가 반드시 살 만한 사회로 근접하게 하는 열쇠가 아닐 수 있으며, 일 개인의 수준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 및 행복감을 항상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자각이 서구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본격적으로 구가하게 된 1960년대에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살 만한 사회,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일까?’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사회학, 경제학 및 심리학을 중심으로 살만한 사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노력은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으로 발전되어,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 객관적 삶의 질이나 조건이 경제적 수준이라는 단일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문화생활, 안전, 형평 등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다차원적인 삶의 조건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한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발전 전략의 설정을 위한 기준 제시를 가능케 하였는데, 유엔의 인구사

회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나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회지표체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나름의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객관적 삶의 조건 즉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Shuessler & Fisher 1985).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MDI)는 매년 평균수명, 성인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을 토대로 발표되고 있다. 200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한 보고에서, 1위는 78.9점을 얻은 노르웨이였고, 한국은 75.4점으로 177개국 중 28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그룹에 속하였다.

한편, 행복에 대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주관적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질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98년 유엔이 영국의 경제정치대(LSE)에 의뢰해 각 나라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 정도(당신은 현재 행복하십니까?)를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국 54개국 중 한국은 23위를 차지하였고 1위는 위 객관적 조사에서 145위를 차지한 방글라데시로 나타나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조선일보 2003). 또한, 미국 미시간대 사회조사 연구소가 최근 8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9위를 차지하였다(중앙일보 2004). 행복지수에서 전체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서유럽이나 미주 국가의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가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2003년 1월 6일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의 심리학자 Rothwell과 전문상담가 Cohen의 행복공식을 발표한 바 있으며(BBC News 2003), 그 보도 이래 각국의 언론매체에서는 이들의 행복공식을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행복지수 산출공식은 $\text{행복} = P + (5 \cdot E) + (3 \cdot H)$ 로, P(Personal Characteristics)는 개인의 성격특성 및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고, E(Existence)는 생존의 기본적 요소인 돈, 건강, 소속감 등을 나타내며, 마지막 H(Higher Order)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야망과 같은 고차원적 욕구에 해당한다. 최근 한 시사주간지(주간동아 401호 2003: 9. 11-18)에서는 이 공식을 가지고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64.13점(100점 만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Rothwell과 Cohen(2003)의 행복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항들은 부록 1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행복지수 산출공식은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및 욕구가 우리와는 상이한 영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이를 한국인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인들과 서구문화에서 중요시되는 행복요인들은 다를 수 있으며, 만일 유사한 요인들이 도출되더라도 그 상대적 비중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달리 집합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가족 요소와 함께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인간관계 요소가 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Rothwell과 Cohen(2003)의 연구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행복공식 도출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통계적) 근거(즉, 어떠한 근거로 공식에 3개의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그 가중치가 각각 1, 5, 3인 이유; 실제로 문항수와 문항내용을 보면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P는 1이 아니라 2임)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된 4개의 문항은 심리측정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 문항에서 4내지 5개의 서로 다른 행복요인들을 함께 묻고 있어서(예; 고차원적 욕구 문항——필요할 때 도와 달라고 부탁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행복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어느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점수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의 행복 척도는 신뢰도나 타당도(좋은 검사 혹은 척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특성들)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없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공식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측정문항들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국내의 행복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행복공

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요인들을 도출하고, 인간의 행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에 대한 충족으로 설명한 Alderfer(1972)의 생존·관계·성장의 욕구이론에 따라 행복요인들을 3가지로 나누어 조망해 본 뒤, 이들 욕구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혹은 비중(설명력)을 산출하여 한국인에게 맞는 행복공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에 관한 욕구이론

욕구이론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행복을 욕구충족의 견지에서 바라본다. Murray(1938), Maslow(1954), Alderfer(1972) 등의 욕구이론가들은 인간이란 어떤 욕구 및 욕망을 갖는 존재이고,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면 행복하고, 반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좌절 또는 불행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Murray(1938)는 인간은 무수히 많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12개의 생리적인 욕구와 28가지의 심리적 욕구를 열거했다.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 갈증, 성욕 등과 같은 유기체 생존을 위한 욕구를 말하며, 심리적 욕구는 성취욕구, 친애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등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욕구를 의미한다(Murray 1938; 이훈구 1997). Murray(1938)에 의하면, 개인이 추구하는 욕구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투사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TAT(주제통각검사)검사를 통해서 개인이 어떤 욕구의 소유자인가를 살필 수 있고, 그가 추구하는 욕구에서 얼마나 충족 또는 좌절했는가를 통해서 주관적 안녕이나 행복을 진단할 수 있다.

Maslow(1954)는 임상적 관찰을 통해서 Murray(1938)의 방대한 욕구유형을 ①생리적 욕구, ②안전의 욕구, ③소속 및 애정의 욕구, ④존경의 욕구, ⑤자기실현의 욕구 등 5가지 욕구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aslow는 이들 욕구유형이 순서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 추구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Maslow 또한 Murray와 같이 이들 욕구의 충족과 좌절에 따라 인간의 행복을 진단할 수 있

다고 보았다.

한편 Alderfer(1972)는 Maslow(1954)의 욕구이론에서 욕구의 위계성을 비판하고, Maslow의 5단계 욕구위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수정한 욕구위계이론을 제안하였다. 3단계 욕구란 차례대로 생존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를 나타낸다. 각 욕구의 첫 글자를 따서 Alderfer의 이론을 E·R·G 이론이라고 부른다. 먼저 생존욕구는 욕구유형 중에서 가장 구체성이 높아서 인간이 지니는 가장 덜 모호한 욕구들로서, 여러 유형의 물질적 및 생리적 욕구들을 포함한다: 굶주림, 갈증, 봉급, 물리적 작업환경 등이 이 욕구와 관련된다. 즉, 생존욕구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는 음식, 주거지, 돈 등이 있으며, 이들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생존욕구는 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계욕구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계욕구는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Porter, Lawler & Hackman 1975).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 형성된 인간관계가 이 욕구의 핵심을 이룬다. 중요한 타인이란 부모, 상사, 동료, 형제처럼 자신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관계욕구의 충족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Alderfer는 관계욕구를 Maslow의 욕구위계이론과 비교하면서, Maslow의 안전, 애정(소속감), 대인관계의 자존심이 관계욕구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는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욕구들을 의미한다. 성장욕구에는 대인관계에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얻는 자존심과는 달리 개인 스스로 얻은 자신감의 욕구 등이 포함되고(Porter et al. 1975), 그 결과 이 욕구의 만족수준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Porter 외(1975)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개인이 환경에서 능동적 자세를 취하는 데 따라서 성장욕구의 만족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성장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환경이란 도전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환경을 의미한다. Alderfer에 따르면, 성장욕구는 Maslow의 자기확신에 대한 자존심과 자기실현의 욕구와 유사하다.

Alderfer는 만족을 개인이 찾고자하는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를 획득, 충족으로 정의하였고, 좌절은 이들 욕구의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개인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lderfer의 만족의 정의에 따라, 행복은 개인이 추구하는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에 대한 충족으로 정의하고, Alderfer의 욕구위계이론에 따라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존, 관계, 성장의 요소에 따라 구분해 보고, 이들 욕구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욕구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들 결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2.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행복의 개념 자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주관적 삶의 질에 객관적 삶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삶에 질에 대한 연구는 행복의 객관적 조건을 밝히는 연구로서, GNP나 GDP와 같은 경제지표와 수명률, 영아사망률, 문맹률, 국민 1,000명당 의사수, 학교수, 범죄율, 자살율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회지표를 총괄하여 한 국가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UN의 인구사회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나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통해 국가간, 집단간, 개인간 비교를 실시하여 객관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 지표는 인간이 지각하는 행복의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Campbell 1976). 그리고

이들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지표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하여 반드시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행복 정도는 개개인에게 만족한 혹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개인 수준에서의 경험적 접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의 선발주자에 해당하는 Diener 등(1999)은 주관적 삶의 질이 크게 두 영역의 세 가지 상호 독립된 차원들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적인 영역이다.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호 독립적인 두 차원 즉, 즐거운 감정(pleasant affect)과 불쾌한 감정(unpleasant affect)으로 구분된다. 즉,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작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 한편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주관적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서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내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상호간에 상당히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소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bottom-up approach)이라 하여, 삶을 구성하는 하위 개별 영역들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및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인간의 욕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면 주관적 안녕이 높아지리라는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응답자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또 다른 접근은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접근(top-down approach)이라 하여,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만족도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

나라 개인 내적인 심리적 성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컵에 물이 반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낙관적으로 느끼는 성격과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그 성격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자기통제감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iener & Emmons 1984; Diener et al. 1999).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성격 특성간에는 상호간에 인과적 영향을 교환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Feist et al. 1995; 이현송 1998).

그러나 Ryff(1989; Ryff & Keyes 1995)와 그의 동료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Ryff(1989)와 Ryff & Keyes (1995)는 주관적 안녕감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Ryff(1989)는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임상, 상담, 발달심리학 등에서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그리고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과 같은 6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행복의 절대적 수준과 삶의 특정 영역에서의 만족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자들이 행복의 기준들을 설정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따라서 행복에 대하여 피험자들로부터 도출된 기준을 사용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예; Diener et al. 1995).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ee 외(1999)에서는 피험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행복의 기준을 도출해 내고 그 결과를 비교문화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개방형 질문들(예;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과 지각된 행복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질문들(예; 행복의 수준을 평정하는 11점 척도)로 이루어진 행복설문(happiness questionnaire)을 실시하였다. 행복의 요소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14가지 범주가 얻어졌다: 가족,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경제적 부유, 독립성/자율성, 영적/종교적 삶, 인생의 목표, 스트레스 없는 생활, 건강, 경쟁력/능력, 타인들에게 인정받음, 지식/학습, 이타적 행동, 창조성, 예술적 노력. 또한 이들 14가지 범주에 대해 피험자의 개인적 중요성을 4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한 결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복의 절대적 수준은 다르지만, 행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순서의 기준들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면,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종교 등이 서양문화권인 캐나다 대학생에 비하여 동양문화권인 한국 대학생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되었다.

Chiasson, Dube & Blondin(1996)의 연구에서는 행복의 요소에 대해 중미와 북미 사람들의 견해를 비교하였다. Chiasson, Dube & Blondin은 4가지 문화권의 피험자들(불어권 캐나다인, 영어권 캐나다인, 엘살바도르인, 미국인)에게 행복에 대한 개방형 질문들(예;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에 응답하게 한 후 내용분석한 결과, 행복의 구성요소로서 18가지를 얻었다. 개인간 요소들(interpersonal factors)로는 가족관계, 우정, 일반적인 대인관계, 친밀한 관계, 타인을 도움으로써 타인이 행복해 하는 것을 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도출되었고, 개인 내적 요소들(intrapersonal factors)로는 가치 있는 목표의 성취, 긍정적인 자아관, 긍정적인 인생관, 개인적 장점(예; 개방성), 종교적 가치, 일에서의 성취,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이 얻어졌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요소들(diverse factors)로는 생활의 사소한 즐거움, 돈, 건강,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사회정치적 여건이 얻어졌다.

행복의 구성요인에 대한 4가지 문화권의 피험자들의 응답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요소들은 가족관계, 가치 있는 목표의 성취,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개인주의적 경향(individualism)이 강한 북미 피험자들(영어권 캐나다인, 미국인)은 쾌락적 요소(예; 생활의 사소한 즐거움)와 행복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예; 긍정적 인생관, 개인적 장점)을 빈번히 언급한 반면, 집단주의적 경향(collectivism)이 강한 엘살바도르인들은 종교적 가치와 사회정치적 여건을 빈번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동양문화권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지만 서양문화권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김명소·차경호·임지영(200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혹은 바람직한 삶(good life)의 구성요인을 탐색해 보고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 정서)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개 도시의 대학생 425명이 참여하였다. 1차 조사에서 60명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좋은 삶의 특성들을 조사한 결과, 196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다. 중복된 특성들을 제외한 후 좋은 삶의 특성들 132개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2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특성이 바람직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균 3점 이하의 중요도를 보이는 문항들을 제외한 최종 112 개의 특성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14개의 좋은 삶의 구성요인들로 분류하였다.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작하고 이를 165명의 또 다른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여 그들 자신의 현재 삶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와 함께 Diener 외(1984)의 삶의 만족도 척도와 정서적 안녕감 척도를 실시하여 대학생들로부터 도출된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와는 정적인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은 삶의 구성요인들은 부정 정서와는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좋은 삶의 어떤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과 가족정체성 요인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3. 행복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행복지수 작성은 행복을 측정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지수화시키는 것으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변수 가중치를 산정하는 문제이다. 이 절에서는 가중치 산정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방법과 공통요인회귀분석방법, 단순상관관계분석 및 LISREL 측정모형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 **중다회귀분석에 의한 가중치 도출** : 중다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2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선형함수관계를 밝히는 통계적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강상진 2002: 7).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은 여러 행복요소 상호간의 영향력(interaction)을 고려하여 전반적 행복정도에 기여하는 항목별 중요도를 산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 방법은 행복도 조사 특성 상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중다회귀분석방법은 행복에 대한 전반적 측정치(종속변인)와 세부항목에 대한 측정치(독립변인)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이들간의 선형관계를 밝히는 것이므로, 종속변인에 대한 측정치가 없으면 가중치를 개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공통요인회귀분석에 의한 가중치 도출** : 공통요인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변인들의 공통요인을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들 요인을 기반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공통요인회귀분석방법을 통한 가중치 도출과정은 앞의 중다회귀분석방법에서 공통요인을 도출하는 요인분석과정을 포함하면 중다회귀분석방법과 동일하다. 즉, 1단계로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될 각 항목들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중다회귀분석과 같이 회귀계수 β_i 를 추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전반적 행

복의 차원 또는 세부항목의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한다.

공통요인회귀분석방법은 변수들간 상관계수의 유사성에 의해 공통적인 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 요인분석방법을 거치므로, 측정문항이 많아 서 변수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통요인들간의 독립성이 전제되어, 회귀분석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요인회귀분석방법은 각각의 측정변수들을 공통요인으로 묶기 때문에 세부적인 행복문항들의 중요도를 산출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다회귀분석에서와 같이 전반적 측정치(종속변인)와 세부항목에 대한 측정치(독립변인)를 독립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단순상관관계분석에 의한 가중치 도출 : 단순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가중치 도출은 전반적 측정치(종속변인)와 세부항목간의 상관계수 $r_1, r_2, \dots, r_p$ 를 추정하고, 상관계수를 합산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단순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가중치 도출방법은 계산방법이 간단하고 각 개별 행복요소들이 종합적인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항목들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interaction)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LISREL 측정모형에 의한 가중치 도출 : 잠재변수가 있는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이라 함은 관심영역 속에 있는 인과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일련의 선형방정식들(simultaneous linear equations)의 항목으로 정식화한 것으로, 인과모형(causal model) 또는 공분산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e model)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김기영·강현철 2001). 구조방정식모형의 방정식체계는 관찰변수와 잠재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잠재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측정모형은 잠재변수들이 관찰변수들을 통해 어떻게 측정되어지는가를 규정하며, 관찰된 변수들이 추상적, 가설적 개념을 구축함에 있어 가지는

측정도구로서의 특성들(신뢰성과, 타당성)이 관심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측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측정오차 등이 반영된다(김기영·강현철 2001).

본 연구에서는 LISREL 측정모형은 잠재변인을 행복으로 하고, 행복요소를 측정변인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상대적 중요도는 ξ (잠재변인 : 행복)에 대한 x (측정변인 : 행복요소)의 계수인 Λ_x (가중치)로 설명된다. 이를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라고 한다. 다음으로 Λ_x 를 합산하여 행복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한다.

LISREL 측정모형을 통한 가중치 도출방식과 위의 중다회귀분석, 공통요인회귀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도출방식간의 차이는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을 종속변인(준거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추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중다회귀분석, 공통요인회귀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준거가 되는 종속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준거관련 타당도가 가지는 단점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근접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김기영·강현철 2001)는 것이다. 그러나 LISREL 측정모형에서는 계수추정치 Λ_i (표준화 추정치)가 관찰변수와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경험적 타당도라 부른다. 그러므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근접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측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측정점수가 측정의 사용목적에 잘 부합되어 지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I. 결과 및 논의

1. 한국인의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공식 개발 과정

1) 조사목적 및 대상자

▪ 1차 조사

1차 조사는 FGI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감안하여 20~34세, 35~49세, 50~64세의 남, 여 각각 8~9명으로 구성된 6개 표본, 총 61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2인 1조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행복 혹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보고하였다.

▪ 2차 조사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나타난 특성들이 한국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1차 조사에서 나타나 행복특성들을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이 한국인의 행복이나 행복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를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548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불성실한 응답자 31명을 제외한 5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차 조사

3차 조사에서는 전국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1, 2차 조사를 통해 제작된 행복한 삶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Diener et al. 1984), 즉 삶의 만족도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1,503명을 선정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별 분포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2) 조사 도구

▪ 1차 조사

FGI를 통해 한국의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 혹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1)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2) 무엇이 당신을 지금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3) 행복한 사람 혹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뷰 참가자들이 행복한 혹은 좋은 삶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분석을 통해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38개를 추출하였다.

▪ 2차 조사

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어진 138개 문항과 기존의 문헌들에서 중요하다고 제시된 종교요인 4개 문항 및 사회, 정치, 문화, 환경요인 10개 문항을 포함한 15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이 한국인의 행복이나 행복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6: 매우 중요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 3차 조사

행복한 삶 척도: 3차 조사를 위해 2차 조사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수정 및 첨가의 검토과정을 거쳐 행복한 삶 척도를 제작하였다. 행복한 삶 척도는 총 97문항이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별로 내적일치도 계수가 .642~.875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무선적으로 배치된 행복한 삶의 각 항목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1, 2, 3차 조사과정을 거쳐 제작된 행복한 삶 척도는, 한국인들의 “행복”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암묵적 개념들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객관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의 응답자들을 바탕으로 혹은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존의 도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항 목		사 례 수	(%)
성별	남	727	(48.4)
	여	775	(51.6)
연령	20-29세	336	(22.5)
	30-39세	329	(22.0)
	40-49세	329	(22.0)
	50-59세	327	(21.9)
	60세 이상	172	(11.5)
결혼 상태	미혼	343	(22.9)
	기혼, 동거	1106	(73.8)
	이혼(별거), 사별	49	(3.3)
자 녀 수	없음	365	(24.3)
	1명	178	(11.8)
	2명	683	(45.4)
	3명	186	(12.4)
	4명 이상	74	(4.9)
학력	고졸 이하	718	(49.2)
	대학교 재학	180	(12.3)
	대졸 이상	559	(38.3)
거 주 지	서울	714	(48.5)
	인천	148	(10.0)
	부산	222	(15.1)
	대구	201	(13.6)
	광주	76	(5.1)
	대전	80	(5.4)
직 업	충청	30	(2.0)
	학생	180	12.3
	주부	356	24.4
	자영업	321	22.0
	영업직	98	6.7
	사무직	226	15.5
	생산직	72	4.9
	전문직	39	2.6
	공무원	41	2.8
	기타	124	8.5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92	20.1
	150-250	464	32.0
	250-350	446	30.8
	350-450	138	9.5
450만원 이상		107	7.3
전 체		1503	(100.0)

3) 분석방법

2차 조사에서 얻어진 행복한 삶 척도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일개념성(single factor)과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고 최종 97문항, 1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삶 척도를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152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너무 많은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어 요인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이들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1요인으로 해석 가능한 8개 요인과 2단계에서 도출된 8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1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으며 이 때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행복한 삶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선정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표집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¹⁾

마지막으로 개발된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척도를 통해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16개의 행복요인을 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 욕구위계이론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LISREL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에 의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2. 행복의 세부요소 및 행복공식 구성요소(영역)

1) 한국인의 행복요소(총 16개)

한국인의 행복 구성요인으로 나타난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력, ②

1) 행복한 삶 척도의 16 요인 및 개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을 참고.

건강, ③ 외모, ④ 사회-정치-문화-환경, ⑤ 자녀의 바른 성장, 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⑦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⑧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⑨ 사회적 지위 및 인정, ⑩ 자기 수용감, ⑪ 긍정적 인생관, ⑫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 ⑬ 자립성, ⑭ 종교, ⑮ 사회봉사, ⑯ 여가.

2) 생존·관계·성장 욕구위계이론(ERG 이론 :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need theory)에 따른 재분류

행복이란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될 때 경험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16개 행복요인들을 생존·관계·성장 욕구위계이론에 근거하여 생존, 관계, 성장관련 행복으로 재구성한 결과(행복의 3대 영역)가 <표 2>에 정리되었다.

<표 2> 한국인의 행복요소와 생존·관계·성장욕구의 대비

욕구	한국인의 행복요소	정의
생존	① 경제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급전적 여유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정도
	②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제반 환경적 요인(사회, 정치,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
	③ 외모	현재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④ 건강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정도
관계	⑤ 자녀의 바른 성장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녀간에 화목한 정도
	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과 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
	⑦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배우자(이성)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우자(이성)로부터 배려,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⑧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에 친밀감을 느끼는 타인이 있는 정도
	⑨ 사회적 지위 및 인정	타인으로부터 현재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학력 등에 대해 인정받고 있는 정도
성장	⑩ 자기 수용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수용감 정도
	⑪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⑫ 자립성	자신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정도
	⑬ 여가	일상을 벗어난 문화생활 및 레저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정도
	⑭ 긍정적 인생관	삶을 살아가는 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⑮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⑯ 종교	현재 만족스러운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

3. 한국인의 행복지수 산출과정

1) LISREL 측정모형에 의한 16개 행복요인과 생존, 관계, 성장육구로 재구성된 행복요소에 대한 가중치 산출과정

LISREL 측정모형은 잠재변인을 행복으로 하고, 측정변인으로 16개 행복요소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즉, 행복을 잠재변인으로 하고, 이것이 16개 행복요소의 측정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영향력의 크기는 ξ 에 대한 x 의 계수인 Λ_x 로 설명된다. 이를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라고 한다.

- **단계 1** : 1,502명 전체, 성별, 연령별 16개 행복요인의 공변량 행렬을 구하기 위해, 16개 행복요인의 평균값(152개 행복문항 이용)을 이용하여 각각의 공변량 행렬을 구하였다.
- **단계 2** : 단계 1에서 도출된 공변량 행렬을 이용하여, 행복요인(잠재변인)과 16개 행복요소(측정변인)으로 하는 행복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모형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었다. 행복모형에 따라 행복요인(잠재변인) 측정을 위하여 이용되는 16개 행복요소(측정변인)을 이용하여 경로도(path diagram)와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이때 두 변인간 상관계수가 .3 이상인 측정변인간에는 상관의 유의성을 인정하여 경로도에 반영하였다.
- **단계 3** : 위에서 산출한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가중치 합이 100%가 되도록 환산하여 이를 각 측정변인의 가중치로 정의하고, 각 평가지표 구성요인을 점수화한 뒤, 이를 생존, 관계, 성장육구에 따라 재분류하고 각 육구의 하위 행복요소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생존, 관계, 성장육구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100% 환산된 가중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치 (Weight)}X_i = \frac{X_i \text{의 경로계수}}{\sum_{i=1}^{16} X_i \text{의 경로계수}} \times 100(\%)$$

전체 1,503명과 성별, 연령별 측정모형의 부합지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전체 1,503명, 성별, 연령별에 따른 16개 행복요인과 생존, 관계, 성장욕구 요소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Δx : LAMDA-X) 및 100%로 환산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이들 행복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 중 NFI, NNFI, CFI의 값이 전체, 성별, 연령별 모두에서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을 넘고 있었다.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에서 NFI, NNFI, CFI의 값은 .90을 넘는 좋은 합치도 지수를 보였으나, 표집자료로 전집자료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RMSEA값은 20대를 제외하고 Browne와 Cudeck(1983)이 제안한 .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좋지 않은 부합지수를 보였다.

<표 3> 전체, 성별, 연령별 행복 모형의 부합도 지수

	RMSEA	NFI	NNFI	CFI
전체	.111	.921	.910	.927
남성	.125	.900	.893	.913
여성	.105	.920	.918	.933
20대	.082	.915	.929	.942
30대	.124	.892	.893	.913
40대	.102	.919	.927	.940
50대 이상	.104	.908	.915	.930

4. 한국인의 행복지수 산출 공식

$$\text{행복} = 2.5 * E(\text{생존}) + 2.5 * R(\text{관계}) + 5 * G(\text{성장})$$

<표 4>를 살펴보면, 생존적 욕구와 관련된 행복요소는 약 2.5, 관계적 욕구와 관련된 행복요소는 약 2.5로 나타나 동일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성장과

관련된 행복요소는 약 5로서 앞의 두 요소들에 비해서 2배에 해당하는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행복에 대한 공식을 도출하였다.

〈표 4〉 16개 세부 행복요인과 생존, 관계, 성장 욕구들의 가중치 비율 및 경로계수

행복조건	100(%) 환산 가중치 비율								LAMDA-X 추정치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생존	26.1	25.8	26.5	25.3	24.4	27.3	27.2		1.68	1.56	1.76	1.53	1.54	1.76	1.75	
경제력	11.6	11.8	11.4	8.8	11.2	11.1	11.9		0.73	0.71	0.76	0.53	0.71	0.72	0.77	
사회정치문화 환경	6.1	6.7	5.5	5.4	5.0	7.5	5.7		0.39	0.41	0.37	0.33	0.32	0.48	0.36	
외모	5.3	4.7	5.9	6.6	5.8	6.1	5.4		0.35	0.28	0.39	0.40	0.36	0.39	0.35	
건강	3.1	2.6	3.7	4.5	2.4	2.6	4.2		0.21	0.16	0.24	0.27	0.15	0.17	0.27	
관계	25.2	24.3	26.0	23.8	26.5	25.8	24.3		1.62	1.48	1.73	1.43	1.68	1.67	1.56	
자녀의 바른 성장	2.7	2.7	2.6	0.0	2.6	2.4	3.1		0.17	0.17	0.17	0.00	0.16	0.15	0.20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4.3	4.4	4.3	7.0	5.1	5.0	3.1		0.28	0.27	0.28	0.42	0.33	0.32	0.20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5.0	3.9	6.1	2.4	4.6	5.6	5.0		0.34	0.24	0.41	0.14	0.29	0.36	0.32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3.3	3.8	2.8	5.8	3.9	3.2	2.8		0.20	0.23	0.19	0.35	0.25	0.20	0.18	
사회적 지위 및 인정	9.9	9.5	10.2	8.6	10.3	9.6	10.3		0.64	0.58	0.68	0.52	0.65	0.62	0.66	
성장	48.7	49.9	47.5	50.9	48.9	46.9	48.5		3.08	3.02	3.17	3.06	3.11	3.03	3.12	
자기 수용감	11.4	11.6	11.3	11.6	11.8	10.6	11.6		0.73	0.70	0.75	0.70	0.75	0.68	0.75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	7.8	7.7	7.8	9.0	8.8	6.9	8.2		0.50	0.47	0.52	0.54	0.56	0.44	0.53	
자립성	3.2	3.6	2.8	4.3	3.7	2.7	3.3		0.21	0.22	0.19	0.26	0.24	0.17	0.21	
여가	11.0	11.5	10.6	9.6	9.9	11.2	11.8		0.71	0.70	0.71	0.58	0.63	0.73	0.76	
긍정적 인생관	4.3	4.5	4.0	5.7	5.4	4.4	3.4		0.26	0.27	0.27	0.34	0.34	0.28	0.22	
사회봉사	7.3	7.0	7.6	6.6	6.2	7.7	7.7		0.46	0.42	0.51	0.40	0.40	0.50	0.49	
종교	3.7	4.0	3.4	4.1	3.1	3.4	2.5		0.21	0.24	0.23	0.25	0.20	0.22	0.1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39	6.05	6.66	6.02	6.33	6.46	6.43	

주) LAMDA-X 모수 추정치는 20대 자녀의 바른 성장 요인을 제외하고 t값이 유의하였음

세부적 요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과 관련된 특성(배우자, 자녀, 부모친지 포함)으로 나타났다(12.0%), 그 다음으로 경제력(11.6%),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자기 수용감(11.4%), 여가 (11.0%), 사회적 지위와 인정(9.9%), 신체적 요소(건강 및 외모)(8.4%),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7.8%) 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 남녀에 따른 상대적 설명비율 차이 비교

행복에 대한 생존 요소의 설명비율은 여성(26.4%)이 남성(25.7%)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관계 요소의 설명비율 또한 여성(26.0%)이 남성(24.4%)에서 보다 더 크게 인식되었다. 한편, 행복에 대한 성장 요소의 설명비율은 남성(49.9%)이 여성(47.5%)보다 더 크게 나타나 생존 및 관계와 관련된 행복 지각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행복지각은 여성보다 남성의 행복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요인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성(특히 외모)과 가족 요소(특히,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가 남성에 비해서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남성의 경우 경제력과 자기 수용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상대적 설명비율 차이 비교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은 40대와 50대(각각 27.3%와 27.2%)에서, 관계와 관련된 요소들은 30대(26.5%)에서, 성장과 관련된 요소들은 20대(50.9%)에서 가장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기 수용감과 함께 경제력, 신체적 특성, 가족, 여가 및 자유,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가 전 연령대에서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20대의 행복특성은 자기 수용감과 신체적 특성(외모와 건강),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긍정적 인생관, 부모,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 20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요소가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20대에 비해서 외모나 건강과 같은 신체적 특성과 부모와의 관계, 타인(친구나 이웃)과의 대인관계가 갖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의 영향이 커지며, 관계적 측면의 중요한 초점도 친구와 부모에게서 자녀와 배우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경제력의 영향력이 20대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은 30대의 결혼 후 금전적 필요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40대의 행복특성은 30대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인들 외에, 사회·정치·문화환경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불안한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여건으로 인해서 40대의 이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여가와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행복특성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64세까지)의 행복특성은 타 연령들에 비해서 노후를 대비한 경제력, 건강,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자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여가 요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한국인의 행복지수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 57.71점 (표준편차 10.61)

행복점수 범위 = 90.45~16.73 (100점 만점)

위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즉, 3대 행복 영역의 가중치와 세부 요인의 가중치 반영) 한국인의 행복지수 평균은 57.71로 나타났다. 행복 영역별로 보면 생존관련 행복점수가 12.97점으로 25점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12.5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관계와 관련된 행복점수는 평균값이 17.6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생존 요소에서보다는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적 성장과 관련된 행복에서는 평균이 27.05로 나타나 중간값인 25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3가지 주요 행복요소 중에서 한국인들은 관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관계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집합주의적인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전체 행복지수 평균 및 성별, 연령별 행복지수 비교

행복 요소	성별			연령별					전체
	남성	여성	t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이상(4)	Scheffe	
생존	13.23	12.72	3.31***	13.01	12.84	12.89	13.08		12.97
관계	17.95	17.44	3.62***	17.90	17.93	17.77	17.33	1,2 > 4	17.69
성장	27.41	26.71	2.31*	27.31	26.64	27.00	27.18		27.05
전체	58.59	56.87	3.14***	58.21	57.42	57.66	57.59		57.71

주) 생존 25점, 관계 25점, 성장 50점, 전체 100점 만점

남녀간 행복지수 차이를 보면 남성이 58.59, 여성이 56.87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존, 관계, 성장의 세 가지 하위 요소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행복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F(3, 1390) = 0.36, n.s.$), 관계 요소를 제외한 하위 요소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생존($F(3, 1390) = 0.55, n.s.$), (관계($F(3, 1390) = 4.48, p < .001$), 성장($F(3, 1390) = 0.83, n.s.$)). 관계 요소에서는 20~3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전체 행복지수와 생존, 관계, 성장 요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전체($F(6, 1465) = 3.66, p < .001$), 생존($F(4, 1465) = 4.36, p < .001$), (관계($F(6, 1465) = 4.18, p < .001$), 성장($F(6, 1465) = 2.87, p < .01$)).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서울, 대전 지역의 시민이 가장 행복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비슷한 점수대를 보

이고 있다. 춘천 지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이 지역에 사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적었으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표 6〉 지역별 행복지수 비교

행복요소	서울(1)	인천(2)	부산(3)	대구(4)	광주(5)	대전(6)	춘천(7)	Scheffe
생존	13.29	12.34	12.48	12.98	12.96	13.25	11.95	1>2,3
관계	18.00	17.16	17.36	17.24	17.66	18.09	17.62	6>2
성장	27.61	26.96	26.06	26.55	26.33	27.79	26.16	6>3
전체	58.90	56.46	55.90	56.77	56.95	59.14	55.73	6,1>3,7

주) 생존 25점, 관계 25점, 성장 50점, 전체 100점 만점

〈표 7〉 소득수준별 행복지수 비교

행복요소	150만원 미만 (1)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3)	350만원 이상 (4)	Scheffe
생존	12.33	12.46	13.37	14.02	4>3>1,2
관계	17.13	17.26	18.09	18.43	3,4>1,2
성장	26.1	26.08	27.96	28.39	3,4>1,2
전체	55.56	55.79	59.42	60.84	3,4>1,2

주) 생존 25점, 관계 25점, 성장 50점, 전체 100점 만점

소득수준별로 보면, 전체 행복지수와 생존, 관계, 성장 요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전체($F(3, 1482) = 21.36, p<.001$), 생존($F(3, 1482) = 24.02, p<.001$), (관계($F(3, 1482) = 18.04, p<.001$), 성장($F(3, 1482) = 15.30, p<.01$). 전체적으로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월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비해 행복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소 월 250만원이라는 소득수준이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6. 한국인의 행복을 위한 제안

한국인의 행복을 위한 제언을 위해 행복한 사람(행복지수가 상위 33.3% (행복점수: 62.829))과 불행한 사람((하위 33.3%(행복점수: 53.893)) 간 행복 요소에서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전체, 성별, 연령대별 평균차이 분석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8> 성별 상위 행복지수 33.3%와 하위 33.3%의 차이

행복 요소	전체			남성			여성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생존	15.74	10.13	5.61	15.82	10.35	5.47	15.65	9.95	5.70
관계	20.11	14.98	5.13	20.14	15.37	4.77	20.08	14.66	5.42
성장	33.09	20.74	12.35	33.13	20.85	12.28	33.05	20.65	12.40

주) 생존 25점, 관계 25점, 성장 50점, 전체 100점 만점

<표 9> 연령별 행복지수 상위 33.3%와 하위 33.3%의 차이

행복 요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행복 상위 33%	행복 하위 33%	차이 점수
생존	15.45	10.18	5.27	15.61	10.22	5.39	15.93	10.03	5.90	15.91	10.11	5.80
관계	20.14	15.44	4.78	20.51	15.15	5.36	20.28	15.01	5.27	19.74	14.56	4.28
성장	32.98	20.98	12.00	32.61	20.62	11.99	33.42	21.00	12.42	33.27	20.50	12.76

주) 생존 25점, 관계 25점, 성장 50점, 전체 100점 만점

<표 8>과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행복지수가 상위 33.3%에 있는 사람과 하위 33.3%에 있는 사람의 행복지수 차이는 성장과 관련된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즉, 생존과 관계 요소에서의 평균지수 차이는 각각 5.61 와 5.13으로 나타난 반면 성장 요소에서는 두 집단이 12.35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또한 전체 차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제력이나 건강과 같은 생존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개인적 성숙과 관련된 특성들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존, 관계, 성장의 행복 영역에서 상위 33.3%와 하위 33.3%를 구분해 주는 행복 특성들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판별을 잘하는 상위 5개의 행복 하위 특성을 보면 자기 수용감,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립성, 종교요인으로 나타나 개인적, 심리적 성장 영역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기존의 국외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복지각에 있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기 수용감,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및 자립성은 동일하게 5위 안에 포함되었고, 남성의 경우 종교가, 여성의 경우 사회·정치·문화환경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환경,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신뢰성, 자연 및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과는 차별적으로 여성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교육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 및 문화환경에서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자기 수용감,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및 자립성은 동일하게 5위 안에 포함되었으나 20대의 경우에는 종교가 포함된 반면에, 30대의 경우는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가 5위 안에 포함되었다.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서 주목할 점은 비록 5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가 판별순위에 포함된 점이다. 즉, 젊은이들 중에서 행복감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3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서 주목할 점은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가 행

복한 사람이나 아니냐를 판별하는 데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에 사회생활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 성공으로의 도약에 얼마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고,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냐에 따라서 이시기의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전체, 성별, 연령별 행복지수 상위 33.3%와 하위 33.3%의 판별요소

판별 순위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
2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사회적지위 및 인정	여가
3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사회봉사	외모
4	자립성	자립성	자립성	종교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긍정적 인생관
5	종교	종교	사회정치 문화환경	자립성	자립성	사회정치 문화환경	사회적지위 및 인정
6	경제력	경제력	종교	경제력	종교	경제력	건강
7	외모	외모	대인관계	부모 및 친지간 의 원만한 관계	외모	자립성	경제력
8	대인관계	대인관계	경제력	사회봉사	사회정치 문화환경	여가	대인관계
9	사회정치 문화환경	사회정치 문화환경	긍정적 인생관		건강	외모	사회정치 문화환경
10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외모			종교	종교
11	사회봉사	사회봉사	사회봉사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12	긍정적 인생 관	긍정적 인생관					
13	건강	건강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자기 수용감,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 공통적으로 5위 안에 포함되었다. 4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지위 및 인정과 사회봉사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즉, 객관적인 사회적 성공과 이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더불어 타인에 대해 이타심을 갖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하나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다

르게 나타난 점은 외모와 긍정적 인생관이 5위 안에 포함된 점이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적으로 젊어보이는 것과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력, 건강, 외모, 사회·정치·문화환경과 같은 생존적 특성들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또한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와 남성, 여성 모두 현재의 사회·정치·문화환경에 대한 개선과 이에 따른 안정감(불안감 해소) 지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한국인이 현재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삶에 대해서 긍정적 수용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뚜렷한 삶의 목표 및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해 나가며, 이와 함께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여가 생활을 계획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논의

GNP는 국가의 부를 상징하는 지표이며, 인간개발지수(HDI)는 그 국가 구성원의 인간개발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외에도 한 사회의 상태와 수준을 알게 해주는 단일 지수는 매우 많다. 문맹률, 교통사고율, 부패지수 등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모습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해주며 나아가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미래 사회변화의 지침을 설정케 해준다.

행복에 관한 지표개발은 대부분 삶의 객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한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비록 일부 연구자들이 주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행복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와는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른 서양 문화권에서 개발된 지표이므로, 이들 지표를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지수라는 하나의 척도를 통해 좀 더 명시적이고, 과학적인 행복평가를 구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행복지각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이에 타당한 지표를 개발·측정하여, 비교의 편이성을 확보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과학적 측정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각하고 느끼는 행복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조사로 얻어진 문항들로 구성된 행복한 삶의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행복지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행복공식은 $\text{행복} = 2.5 * \text{생존} + 2.5 * \text{관계} + 5 * \text{성장}$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Rothwell 등(2003)의 행복공식($\text{행복} = P + (5 * E) + (3 * H)$)과 비교해 보면, 행복을 구성하는 구성차원 측면에서 공통점은 생존과 성장의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관계육구가 분화되었으나, Rothwell 등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요인을 분화시킨 점이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연구의 행복요소는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 포함된 구성개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생존 요소에서는 “경제력”, “건강”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사회·정치·문화환경” 요소는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의 “안전”, “선택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및 Rothwell 등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차이점을 보였다.

성장 요소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성장 요소는 “자기 수용감”, “자기 개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여가”, “긍정적 인생관”, “사회봉사”, “종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성장 요소는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성장 요소로 분화되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 성장 요소는 단일문항으로 본 연구의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적 특성요인에서는 “긍정적 인생관”, “자립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여가”, “사회봉사”, 및 “종교” 요인은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관계 요소는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및 인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관계요소가 분화되었으나,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는 관계 요소를 단일문항으로 개인적 특성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행복공식과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은 행복요소의 하위 구성개념 차원뿐만 아니라 행복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또한 차이를 보였다. 비록 행복요소의 하위 구성개념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생존 요소가 본 연구에서는 2.5/10,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는 5/9로 나타나 생존 요소가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요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장요소가 본 연구에서는 5/10, Rothwell 등의 행복공식에서는 3/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소가 가장 중요한 행복요소로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지각은 문화적 특성, 가치관 및 욕구의 차이에 기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 혹은 한 문화권의 행복에 대한 지수개발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행복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6개 요인들(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성장과 관계 요소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해서 객관적인 행복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생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행복요소를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행복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기존 국내 연구들이 Diener(1985)나 Ryff(1989)가 제시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별이 가능한 일개념성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요인이나 기준을 도출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Lee et al. 1999; Chiasson, Dube & Blondin 1996))이 내용분석을 중심으

로 구성요인들을 도출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한 질적 분석 외에 전국적인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요인분석(탐색적 및 확인적)을 통해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한국인에 적합한 행복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며, 단일지표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한국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점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경제적인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중요한 행복요소로 제안된 성장 요소와 같은 분야에서의 행복지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비록 설문조사가 전국적 분포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충분히 고르게 혹은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에서 NFI, NNFI, CFI의 값은 .90를 넘는 좋은 합치도 지수를 보였으나, RMSEA값은 20대를 제외하고 .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좋지 않은 부합지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합치도 지수의 비일관성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하고,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선사항을 찾는 것을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행복지수의 타당도 측면에서 비록 본 연구의 행복요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경험적인 요소들을 탐색하였지만, 행복에 관한 전반적인 측정치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행복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다른 개발 방법들과의 상호비교를 하지 못하고,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세 번째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제한점은 16개 행복요소를 Alderfer의 생존, 관계, 성장 욕구로 재분류하는 과정은 내용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분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LISREL 측정모형에서 2차 요인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2차 요인분석을 통해서는 만족할 만한 부합도를 얻지 못했기에 차선택으로 16개 행복요소를 내용적으로 분류하였다. 비록 생존, 관계, 성장 욕구에 대한 타당도 확보에서 내용타당도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02. <<회귀분석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영 · 강현철. 2001. <<LISREL(SIMPLIS)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명소 · 차경호 ·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2002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조선일보. 2003. 1. 9. 행복.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1/200301090287.html’
2004. 2. 14.
- 주간동아. 401호 2003. 9. 11-18. 한국인 평균 행복지수는 64.13점.
- 중앙일보. 2004. 12. 11. 아시아인 ‘행복지수’ 중하위권.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호): 269-301.
- 이훈구. 1997.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Y: The Free Press.
- Bentler, P. M., and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BC NEWS. 2003. The formula for happiness
‘http://news.bbc.co.uk/2/hi/health/2630869.stm’ 2004. 2. 15. 인출.
- Browne, M. W.,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A.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hiasson, N., Dube, L., and Blondin, J. 1996. “A Look into the Folk Psychology of Four Cultural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673-691.
- Diener, E., and Emmons, R.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Smith, H., and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 Research*, 34: 7-32.
- Diener, E., Suh, E., Lucas, R., and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Feist G.F., Bodner T.E., Jacobs J.F., Miles M., and Tan V. 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38-150.
- Lee, D., Park, S., Uhlemann, M., and Patsula, P. 1999. "What Makes You Happy? :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51-362.
- Markus, H. R., and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2003. Human Development Index.
'http://www.undp.org/hdr2003/indicator/indic_15_1_1.html'에 게시
- Joreskog, K. G. and Sorbom, D. 1993. *LISREL 8 : Sturctural Equation Model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orter, L. W., Lawler, E. E., and Hackman, J. R. 1975. *Behavior in Organizations*. New York: McGraw-Hill.
- Rothewell, C., and Cohen. P. 2003. *Happiness Is No Laughing Matter*.
'<http://www.petecohen.com/microsites/happiness/index.html>'
2004. 2. 14. 인출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and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uessler, K. F., and Fisher, G. A.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부록 1> Rothwell과 Cohen의 행복공식(행복=P+(5*E)+(3*H)) 문항

P(Personal Characteristics)	① 당신은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까?, ② 당신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해도 빨리 일어섭니까, 또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E(Existence)	③ 건강과 돈,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는 편입니까?
H(Higher Order)	④ 필요할 때 도와 달라고 부탁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 각 문항 10점 척도로 되어 있어 1,1,3,5 가중치를 곱하면 총점 100점임	